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Time Use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대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조희금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ersity
Associate Prof.: Cho, Hee Keum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 life of married women employed in a manufacturing industry by analysis patterns of their time use. Data for 172 married working women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e-to-face interview method.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spend 8 hours 44 minutes a weekday, and 10 hours 39 minutes a sunday on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on socio-cultural activities 1 hour 50 minutes(weekday), 5 hours 30 minutes (sunday). 10 hours 22 minutes, 2 hours 23 minutes were consumed for the employed time, compared to 3 hours 4 minutes, 5 hours 28 minutes for household labor.

2) Married working women's employed labor time is excessively too long while for leisure and house work time is too short, which means the patterns of their time use are very unbalanced type.

I. 서론

1991년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는 561만6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46.8%이며, 전체 여성취업자 750만8천명의 74.8%(통계청, 1992)에 이르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경험한 여러가지 변화에 의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공급측면의 변화로는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교육 기회의 확대,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득증대 욕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변화를, 그리고 수요측면의 변화로는 전체적인 산업현장의 노동력부족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미혼여성 노동력의 보완 및 노동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단순노동력의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다(박세일, 1982; 김수곤·심경옥, 1984; 김장호, 1986; 천현숙, 1987; 김혜장, 1987; 정진화,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측되어 왔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취업구조의 변화도 나타내고 있는데, 종래 기혼여성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농림어업직의 종사율은, 1985년 기혼여성 취업자의 43.5%에서 1991년 37.3%로 감소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1992). 그러나, 1980년대에 제조업부문에서는 미혼여성의 종사비율이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종사비율은 증가하여 미혼여성보다 업종으로 유출하여 생긴 공백을 기혼여성이 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러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생산직이므로, 생산직 인력 중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리

라고 예측된다. 물론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서비스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내의 서비스화도 진전되기 때문에 전체산업에서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직업 중 생산직은 1987년 이래 가장 종사비율이 높은 직업으로 1991년 역시 마찬가지이다.¹⁾ 특히, 1991년 기혼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행정직 5.0%, 사무직 3.7%, 판매직 19.4%, 서비스직 20.1%, 농수산직 24.7%, 생산직 27.1%로 미혼여성이 각각의 직종에 18.8%, 43.7%, 10.4%, 8.9%, 0.4%, 17.9%의 분포를 보인것과는 매우 다르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52). 즉 미혼여성의 주된 직종이 사무직인데 반해서 기혼여성은 반 이상이 농수산직과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직의 종사비율이 높다.

한편, 취업한 기혼여성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이 생산노동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등의 재생산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에 따른 주부의 이중역할수행이나 역할수행에서 오는 갈등은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는데, 특히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수행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부족을 수반하게 되므로 취업주부의 시간사용이나 시간갈등에 관한 연구는 취업주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한경미, 1989, 1991; 이연숙의, 1991; 이승미, 1989; 장윤옥, 1992; 유가효의, 1991, 1992).

그러나 지금까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직업에 따른 차이를 크게 주목하기 보다는 취업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취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월소득등 직업에 관련된 변수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²⁾ 개인적인 특성 및 가정환경변수의 차이 역

1) 1991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는 전문행정직 8.5%, 사무직 13.8%, 판매직 17.1%, 서비스직 17.3%, 농림수산직 18.6%, 생산직 24.8% 이다(통계청, 1992).

2) 예를들어, 1991년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종별 여자 근로자의 일평균 근로시간과 월평균 급여액은 전문직 7.8시간 56만4천원, 행정직 7.9시간 125만8천원, 사무직 7.9시간 41만원, 판매직 8.5시간 37만5천원, 서비스직 8.3시간 36만2천원, 생산직 9.2시간 34만7천원으로 생산직은 행정직에 비해 근무시간은 1시간이상 길었으나 임금은 1/4 정도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시 매우 커서, 취업주부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연구결과의 해석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및 가사노동환경(유가효외, 1991; 1992)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실태를 그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므로써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생활시간의 분류 및 생활시간 분석의 두 측면

1) 생활시간의 분류

하루의 생활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시간은 그 내용이나 배분이 역사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도 크게 다를 수 있고(伊藤, 1983, 1), 또 조사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가 생활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행동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생활행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최소단위인 개별행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큰 분류인 행위로 묶어나가는 방법과, 또 전체적인 수준에서 대분류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한 예로는 미국에서 1975-1976년에 조사된 자료의 87개의 활동들을 시장노동,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서비스/쇼핑, 개인적인 필요시간, 교육, 조직활동, 사회적인 참여, 적극적인 여가, 소극적인 여가 등 10개 주된 활동으로 묶어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Hill, 1985), 후자의 예로 1985년 일본에서 159쌍의 부부를 조사한 생활시간 조사에서 전체를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생활시간, 사회적·문화적생활시간으로 나누고 각각을 더 세분하여 32개 활동들로 세분한 것이 있다(伊藤, 1989, 20-21).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 까지 5회에 걸쳐 한국방송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는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행동을 분류·집계하고 있는데, 13개의 대분류와 26개의 중분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 대분류 항목 중 수면, 식사, 신변잡일의 합계는 생활필수로, 일, 가사, 통근의 합계는 노동으로, 그의 교제, 휴양, 여가활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의 합계는 여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기본목적의 하나가 효율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기 때문에(한국방송공사, 1981, 6), 여가활동에 대한 분류는 상세히 하고 있으나 노동에 대한 분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되어있다. 농촌진흥청의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농촌진흥청, 1979, 1983, 1988), 취업주부나 농가 주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시간 분류를 하고 있다(한경미, 1991; 조희금, 1990).

이상의 생활시간분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하루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노동시간, 사회문화적인 시간으로 크게 분류한 후 노동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수입노동시간으로 나누었다. 각 분류별 생활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수입노동시간은 직장에서의 휴식 및 식사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 직업노동시간에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입을 얻기위해 사용해야 하는 총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직장에서의 휴식 및 식사를 수입노동시간에 포함시켰다. 伊藤(1989, 19)역시 직장에서의 식사 및 휴식을 수입노동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자유롭게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즉, 여가시간으로 이의 내용은 김의숙(1991)이 제시한 5개의 여가활동영역으로 나누었다.

2) 생활시간 분석의 두측면

하루의 생활행동에 따라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역동적인 생활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하여, 하루 중

특정행동에 어느정도의 시간을 할당했는가 하는 시간량적인 분석과 함께 어떤 행동이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는가 하는 시간대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대별 분석을 행한 연구는 한국 방송공사의 국민 생활시간 조사 이외에 최은숙등(1981)과 조희금(199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2. 취업기혼여성의 생활시간

1) 분석대상으로서의 취업 기혼여성

취업자란 보수나 이윤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1992, 3). 취업기혼 여성은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혼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생활시간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취업기혼여성을 다룰 경우 국가에 따라 취업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들면, Walker & Woods(1976)의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연구에서는(Stafford, 1983; Miller & Ackerman, 1990; Hiatt & Godwin, 1990) 주당 취업시간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취업시간의 변화가 생활시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연구는 주로 취업 형태가 전일제인가 혹은 시간제인가에 의해 구분한다(伊藤등, 1983, 1989).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기혼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취업유무에 따른 분석이 대부분이나, 구분을 하는 경우는 직업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2) 취업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구조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Nickols & Metzner, 1978; Haftstrom & Schram, 1983, 1986), 여가시간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Nickols & Abdel-Ghany, 1983) 나타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반적인 생활시간구조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1985년 일본의 조사에서 전일제로 취업한 부인의 생활시간이 평일은 생리적시간 10시간 6분, 수입노동시간 8시간 37분, 가사노동시간 3시간 32분, 사회문화적인 시간 1시간 45분이고, 휴일은 각각 11시간 49분, 29분, 6시간 38분, 5시간 4분이었다. 시간제로 취업한 경우는 수입노동시간이 짧은 대신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 및 사회문화적인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伊藤등, 1989, 32-33).

1990년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한경미(1991)는 평일 취업주부의 생리적인 시간이 522분, 직업노동시간이 599분, 가사노동시간이 214분, 여가시간이 103분, 기타가 2분이며, 휴일은 각각이 618분, 72분, 395분, 349분, 2분이라고 하였다.

3. 연구문제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로 취업하지 않을 수 없으며(정민자·위미혜, 1990), 또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역할구분에 의해 가사노동도 전담해야만 하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분석해 보고, 그들의 장시간 노동이 전반적인 생활시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2) 생산직 기혼여성의 하루생활 행동의 시간대별 분포는 어떠한가?
- 3) 생산직 기혼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그들의 생활시간구조에 어떤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 산업의 생산직 기혼여성을 다룬것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제조업내 생산직 기혼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생산직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³⁾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혼여성으로 230명을 설문지를 통해 개별면접하였으나, 그 중 생활시간기록표의 생활행동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172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가계경제 및 주거상황, 가족생활, 자녀양육, 가사노동, 직업생활에 관한 것과 생활시간기록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혼합된 설문지였다. 생활시간기록표는 평일과 휴일을 따로하여 1시간을 15분 간격으로 나누어 생활행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평일은 조사전일로, 휴일은 조사전 일요일을 선택하여 응답자가 해당일의 생활행동을 회상하게 한 후 조사자가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조사는 1989.11월~12월의 1차 조사지역 답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0.7월 1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 8월~11월 2차 조사지역 답사 및 선정을 통해 1990.12월~1991.1월의 2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조사는 대구시의 공단밀집지역인 서구와 북구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어머니 가운데 생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조사는 서구의 이현공단, 북구의 제 3공단, 동구의 제조업체들 가운데 기혼여성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협조의뢰문을 보낸 후, 전화 및 사전방문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업체의 대부분은 여성노동 집약적인 섬유·의복업종이었고, 조립·기계업종도 소수 있었다.

조사자는 본 연구자를 비롯한 가정관리학과 교수 3인과 사전훈련을 받은 계명대 대학원생 및 계명대와 대구대의 대학생들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태파악을 위해 빈도분포, % 및 F검증과 Scheffe-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표 1>에서 보면, 20대가 12.8%, 30대가 35.5%, 40대가 41.8%, 50대가 9.9%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10.5%인 18명은 남편이 없었으며, 남편의 연령은 부인연령 보다 조금 높았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국졸이 40.9%, 중졸이 39.2%로 전체의 80.1%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1991년도 노동부에서 조사한 제조업 종사 기혼여성의 학력분포 가운데 중졸이하 80.1%와 같은 비율이다(노동부, 1991). 남편의 학력은 부인학력 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으며(81.4%), 가족주기는 61%가 청년기 이후의 주기에 속해 있었다. 주거소유 상태는 36.6%만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본인의 월소득은 67.6%가 30만원이하를 받고 있었으며, 평균 월소득은 32만원이었다. 이는 1991년 노동부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월소득 36만2천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노동부, 1991). 응답자의 36.5%는 년 평균 290%가량의 보너스가 있다고 하였다.

근무형태는 주간만 근무하는 비율이 43%, 2교대 근무를 하는 비율은 57%였다. 2교대 근무는 보통 야간작업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요일을 쉬는 경우는 48.8%였는데,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는 일요일을 쉬게 되며, 2교대 근무라도 한달에 1-2번가

3) 본 연구는 199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N=172)

변 인	구 분	%	변 인	구 분	%
본인연령	29세이하	12.8	남편연령	29세이하	5.8
	30 - 39	35.5		30 - 39	29.3
	40 - 49	41.8		40 - 49	38.9
	50세이상	9.9		50세이상	26.0
본인학력	국졸이하	40.9	남편학력	국졸이하	18.8
	중졸	39.2		중졸	32.5
	고졸	19.9		고졸	42.9
				대졸	5.8
가족형태	핵가족	81.4	가족주기	신혼기	1.2
	확대가족	18.6		유아기	19.8
주택 소유형태	자가	36.0		학동기	18.0
	전세	35.5		청년기	48.8
	월세	25.0		진수기	10.5
	기타	3.5		중년기	1.7
본인의 월소득	20만원이하	6.0	근무형태	주 간	43.0
	21 - 30	61.6		2 교대	57.0
	31 - 40	25.7	일요휴무 여부	있 다	48.8
	41만원이상	6.6		없 다	51.2

량 쉬는 경우가 있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

생산직 기혼여성의 1일 생활시간구조를 평일과 일요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 생리적인 시간

생활필수적인 성격을 갖는 생리적인 시간은 평일 8시간 44분, 일요일 10시간 39분으로, 같은해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의 가정부인이 평일 10시간 55분, 일요일 11시간 40분의 생리적인 시간을 갖는 것(한국방송공사, 1991)과 비교하면 평일은 2시간 이상, 일요일은 1시간 정도 짧은 것이다. 평일 7시간 21분이라는 짧은 수면시간은 일요일에는 8시간 44분으로 1시간 20분정도 증가하

는 것으로 메꾸고 있다. 한경미(1991)의 생리적인 시간 평일 8시간 42분, 휴일 10시간 18분과는 비슷하나 일본의 전일 취업주부(1989)의 생리적인 시간 평일 10시간 6분, 휴일 11시간 49분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 취업기혼여성의 생리적인 시간이 짧다.

2) 가사노동시간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19%가 충분하다, 21%가 보통이다, 51%가 부족하다, 9%가 매우부족하다고 응답하여 60% 이상이 가사노동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유가효외, 1991). 이는 평상시 가사노동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표 2〉에서 보면, 3시간 4분으로 일반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5시간33분(KBS, 1991)과 비교하면 2시간 30분가량이 짧으며,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경미, 1991)의 3시간 34분과 비교해도 30분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가사노동의 영역별 소비

〈표 2〉 1 일 생활시간 구조

단위 : 시간:분 (%)

	생활내용	평 일	일 요 일
생리적 시 간	수 면	7:21	8:44
	식 사	55	1:16
	신변관리	21	29
	의 료 등	6	10
	계	8:44(36.4)	10:39(44.4)
가 사 노 동 시 간	식사준비	1:11	1:14
	설 것 이	16	20
	반찬만들기	4	13
	식생활관리 소계	1:31	1:47
	의생활관리	30	1:10
	주생활관리	26	47
	가족돌보기	14	29
	경영·장보기	19	1:13
	기 타	4	2
계	3:04(12.8)	5:28(22.8)	
수입노동 시 간	작업시간	8:33	1:56
	이동시간	1:09	18
	휴식·식사	40	9
	계	10:22(43.2)	2:23(9.9)
사 회 문 화적 인 시 간	소일활동	1:31	3:27
	가정지향활동	12	22
	사교활동	4	1:31
	종교활동	0	7
	자기개발활동	3	3
	계	1:50 (7.6)	5:30(22.9)
합 계		24:00(100)	24:00(100)

시간을 보면, 식사준비를 주로하는 식생활관리시간이 1시간 31분으로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5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의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장보기 가족돌보기등의 순서이다.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28분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일반전업 가정주부들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KBS의 가정부인은 4시간 9분)과는 반대의 현상으로 주부의 취업에 따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시간이 많이 늘어난 영역은 장보기(19분에서 1시간 13분), 세탁등의 의생활관리(30분에서 1시간 10분), 그리고 가족돌보기(14

분에서 29분) 시간이다.

3) 수입노동시간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은 평일 10시간 22분으로, 하루 24시간의 43.2%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작업시간은 평균 8시간 33분이었으며 최저 5시간 30분에서 최고 12시간 30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직장까지의 출퇴근시간으로 평일 1시간 9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또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및 작업도중의 쉬는 시간 40분은 작업과 관계되어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노동시

간에 포함시켰다. 이는 전 직종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1)의 평일 직업노동시간 9시간 59분보다 23분이 길었으며, 일본의 취업주부의 평일 수입노동시간 8시간 37분에 비해서는 무려 1시간 45분이나 긴 시간이다.

2교대 근무인 경우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일요일의 수입노동시간이 2시간 23분이었으며 분석대상자 가운데 27%가 일요일에 작업을 하였다. 일을 한 사람의 평균 작업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평일 보다는 짧았다.

4) 사회문화적인 시간

〈표 2〉에서 보면, 평일 사회문화적인 시간은 1일 생활시간의 7.6%인 1시간 50분이었다. 이는 일반 가정주부가 가지는 평일 여가시간 6시간 8분(KBS, 1991)의 1/3에도 못미치는 시간이다. 또 여가시간 자체가 적을 뿐 만 아니라 여가내용도 빈약해서 전체 여가시간의 대부분인 1시간 31분을 소일활동 즉 TV 시청이나 단순한 휴식등에 보내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사회문화적인 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증가하나 역시 TV시청등의 소일활동에 3시간 27분을 보내고 모임참석이나 친구등을 만나는 사교활동

이 평일 4분에서 1시간 31분으로 증가한 이외의 다른 활동들에는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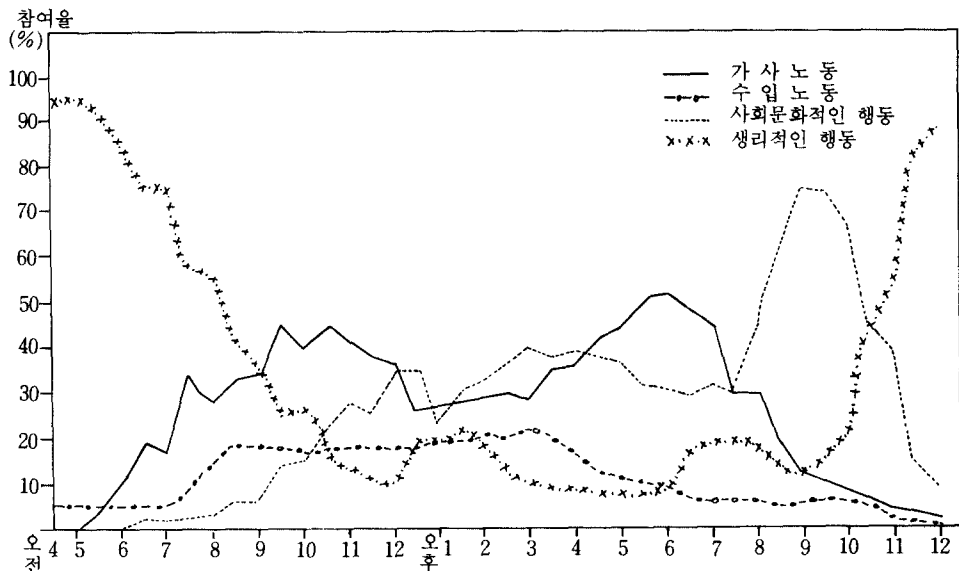
2. 생활행동의 시간대별 분포

생산직기혼여성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하루의 생활행동이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시간대별 분포로 살펴 보았다.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대별 분포가 〈그림 1〉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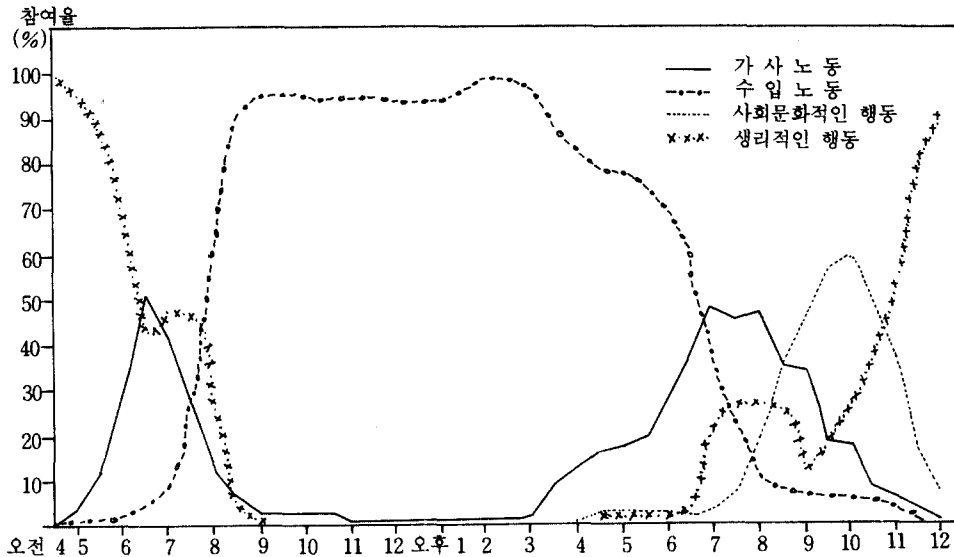
1) 기상시각 및 취침시각

생산직 기혼여성은 평일 오전 6시에 37%, 6시 15분에 71%, 그리고 7시에는 88%가 기상하였다. 그러나 일요일은 기상시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도 커져서 6시 30분에 31%, 7시에 34%만이 기상하였으며, 8시에 62%, 9시가 되어서야 79%가 기상하였다.

취침시각은 평일은 10시 30분에 35%, 11시에 52%, 11시 30분에 78%가 잠자리에 들었으며, 일요일 역시 오후 10시에 34%, 11시에 53%, 11시 30분에는 81%가 잠자리에 들어서 기상시각과 달리 취침시각



〈그림 1〉 평일 생활행동의 시간대별 분포



(그림 2) 일요일 생활행동의 시간대별 분포

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50%이상이 깨어있는 시각을 기상시각으로 또 50%이상이 수면에 들어간 시각을 취침시각으로 본다면, 평일은 6시에 기상하여 11시에 취침하며, 일요일은 8시에 기상하여 11시에 취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리적인 활동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되므로 수면시간외에 오전, 오후의 식사시간에 참여율이 증가함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2) 가사노동을 하는 시각

평일의 가사노동을 시간대에 따라 살펴보면, 아침의 가사노동은 출근시간의 제약으로 짧은시간 동안 식사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전6시 30%, 6시 15분 52%의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6시30분에는 53%가 참여하는 것을 정점으로 7시 37% 7시 45분에는 13%만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의 가사노동은 작업시간의 길이 및 퇴근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시간대의 분포가 길었다. 오후6시30분 33%에서 7시에 44%가 참여하여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후로도 8시 45분 까지 34%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저녁의 가사노동은 식사

준비외에도 세탁과 청소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요일의 가사노동은 오전 7시 15분 부터 34%의 참여를 보이기 시작하여, 오후 7시 45분까지 30%이상의 참여가 하루종일 계속된다. 그 중 오전에 40%이상이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대는 9시 에서 9시 30분 사이이고, 오후에는 5시 15분에서 6시사이에 50%이상의 참여가 있었다.

3) 직장예의 출·퇴근 시각 및 근무시간

평일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45분에 전체의 45%, 8시에는 56%가 출근 중에 있으며 8시 45분에는 출근중인 사람은 단 3%로 출근이 완료된다.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서 오후 5시45분 부터 7시 30분 까지 10%이상의 사람들이 퇴근중에 있었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대체로 오전 8시 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30분 정도 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근무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4) 여가를 보내는 시각

평일 오전중의 여가는 전혀 없었으며, 오후 7시 45분이 되어서야 12%가 TV시청을 하기 시작 하였고,

9시 40%, 10시 51%, 11시 까지도 34%가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 일요일에는 오전 10시15분 부터 오후 11시 까지 20%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오전 중의 정점은 뚜렷하지 않으며 오후에는 8시 부터 10시 까지 50%이상인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8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는 TV시청이라는 단일행동에 60%이상인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텔레

비전의 주말연속극의 시청때문으로 보인다. 여가내용도 가족과의 대화나 사교활동등으로 평일보다는 다양하였다.

3.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

〈표 3〉에서는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

〈표 3〉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생활시간 (평일)

단위: 분 (%)

	수입노동시간 (N)	9.5시간이하 (40)	9.5~10.5시간 (39)	10.5~11.5시간 (53)	11.5시간이상 (34)	F값
가 사 노 동 시 간	식사준비	72	72	72	69	.078
	설거지	13	18	18	14	.854
	반찬만들기등	8	2	3	1	.763
	식생활관리 소계	93	93	93	84	.476
	의생활관리	48. a	23. b	23. b	26. ab	4.391**
	주생활관리	38. a	34. a	14. b	21. ab	5.900***
	가족돌보기	19	10	26	2	2.529
	경영 및 장보기	40. a	22. ab	8. b	4. b	8.783***
	계	244. a (17.0)	182. b (12.6)	166. b (11.5)	138. b (9.6)	15.705***
사 회 문 화 적 시 간	소일활동	124. a	110. ac	74. bc	52. b	9.597***
	가정지향활동	18	8	11	9	.540
	사교활동	9	1	5	0	1.207
	종교활동	1	0	0	0	.734
	자기개발활동	4	0	7	0	.522
	계	155. a (10.8)	119. ac (8.3)	97. bc (6.7)	61. b (4.2)	12.021***
생 리 적 시 간	수면시간	454	447	438	421	1.310
	식사	58	49	55	59	1.357
	신변관리	17. a	30. b	21. ab	14. a	4.5373**
	의료등 기타	24	0	0	0	2.337
	계	553 (38.4)	526 (36.6)	514 (35.7)	493 (34.2)	2.484
수 입 노 동 시 간	작업시간	390. a	508. b	563. c	611. d	95.466***
	이동시간	62. a	62. a	62. a	98. b	9.820***
	휴식 및 식사	37	42	39	42	.5502
	계	487 (33.8) (100.0)	612 (42.5) (100.0)	664 (46.1) (100.0)	751 (52.0) (100.0)	

a, b, c, d는 scheffe's test 결과를 나타낸 것임

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4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다. 평일 총 근무시간이 9시간 30분 이내인 집단의 작업시간은 6시간 30분,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4분, 사회문화적인 시간은 2시간 35분, 생리적인 시간은 9시간 13분인데 비해서, 평일 총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상인 집단은 작업시간만도 10시간 11분이나 되므로 다른 모든 생활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18분이고, 사회문화적인 시간은 1시간 1분, 생리적인 시간은 8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일의 장시간 노동은 생활필수적인 생리적인 시간 보다는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인 시간 즉 여가시간의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영역 가운데는 필수적인 성격이 강한 식생활관리 보다는 경영 및 시장보기와 청소, 세탁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가활동에서는 TV시청등의 소일활동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여성 취업자의 직종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생산직에 가장 많은 기혼여성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실태를 하루 생활시간을 분석하므로써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생산직기혼여성의 생활실태를 생활시간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평일의 총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하여 13시간 26분으로 하루시간의 56%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족 및 자신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은 물론 생활필수적인 시간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생산직기혼여성은 직장생활에 편중된 시간사용으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단순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은 평일에 부족한 여러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대상자의 1/4가량은 계속해서 직장일을 하고 있었으며, 쉬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일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밀린 집안일 특히 장

보거나 세탁등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TV시청과 교제활동의 시간이 증가했을 뿐 다양한 여가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생활행동의 시간대별 분포를 중심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하루 생활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하루의 식사준비를 하고 7시에서 7시15분 사이에 식사를 하며, 7시 30분 부터 시작하여 8시 30분까지는 출근을 완료한다. 저녁에는 오후 6시 부터 퇴근을 시작하여 7시 15분정도까지 퇴근이 이루어지고, 곧 이어 식사준비를 하고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식사를 마치면, 그후 8시 45분까지는 주로 청소를 한다. 가사노동 중 세탁을 하는 경우는 9시 이후 10시 사이의 늦은시간에 하게 된다. 식사를 마친 후 9시부터는 유일한 여가활동인 텔레비전시청을 하고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러한 생활이 평일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혼여성을 둘러싼 여러가지 조건의 변화는 앞으로 생산직에서의 기혼여성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직에 취업하는 기혼여성 취업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고, 노동시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간사용의 편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하고, 여가를 보내고 생리적인 일을 해결하는데 하루의 시간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면, 생산직기혼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도록 가정, 직장, 국가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수곤·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4
- 2) 김의숙,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3) 김장호,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수급구조변화와 기혼여성의 노동참가, 아세아여성연구, 제25집, 1986, 133-160

- 4) 김혜장, 중소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5)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91, 1992.
- 6) 박세일,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분석, 한국개발연구, 제4권 2호, 1982, 59-87
- 7)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29-3, 1991, 227-246
- 8)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2, 대한가정학회지30-1, 1992, 283-309
- 9)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10)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1991
- 11) 장윤옥,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 인식이 시간제약 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1992, 325-345
- 12) 정민자·위미혜, 생산직취업모의 자녀양육현황과 문제점,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1호, 1990, 123-140
- 13) 정진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연구, 제9권 3호, 1991, 77-108
- 14) 조희금,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2호, 1990, 163-180
- 15) 천현숙, 공단지역 기혼여성노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6) 최은숙·이애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3(1), 1981, 12-20
- 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년보, 1976, 1986, 1992.
- 18) 한경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2호, 1989, 1-14
- 19) 한경미,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991, 171-190
- 20) 한국방송공사, 국민생활시간조사, 1981, 1991
- 2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86
- 22) 한국여성개발원, 제조업부문의 성별고용비율변화에 관한 연구, 1991
- 2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
- 24) 伊藤セツ外,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1983
- 25) 伊藤セツ外,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1989
- 26) Hiatt, A.R., & Godwin, D.D., Use of Time and Preferences for Time Allocation Among Urban, Employed, Married Women, *Lifestyles*, 11-2, 1990, 161-181
- 27) Hill, M.S., Patterns of Time Use, Juster, F.T., & Stafford, F.P., (ed), 「Time, Goods, Well-Bing」, ISR, 1985, 133-166
- 28) Miller, J.S., & Ackerman, N.M., Predictors of Time Allocation to Food Tasks in Dual-Earner Families, *HERJ* 18-4, 1990, 286-302
- 29) Nickols, S.Y., & Metzen, E.J.,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ERJ* 7-2, 1978, 85-97
- 30) Nickols, S.Y., & Abdel-Ghany, M., Leisure Time of Husband and Wives, *HERJ* 12-2, 1983, 189-198
- 31) Schram, V.R., & Haftstrom, J.L.,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0-3, 1986, 235-245
- 32) Stafford, K.,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HERJ*, 11-3, 1983, 257-266
- 33) Walker, K.E., & Woods, M.E.,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AHEA, 1976